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81호 1판 (음력 7월 18일) 2017년 9월 8일 금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도시재생 뉴딜’ 광주·전남은 ‘그림의 떡’

5년간 500곳 50조원 투자…文정부 ‘국비 선물’ 사업
부담률 50% 일률 적용…재정 빈약한 지자체들 소외
사업비 절반 부담 못하는 지자체 정부 예산 집중 지원을

‘국비 선물’로 통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자체 부담이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지역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 뒤 국비를 지원해 줄 방침이지만 곳간이 빈약한 광주·전남은 정부가 요구하는 ‘총 사업비 중 50%’를 부담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자체 부담률 50%를 적용하지 말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최대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SOC 일괄 삭감 방침에 따라 과거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던 호남지역이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 광주시 3건 그리고 5개 구청 사업 126건 등 이 지역에서만 129건이 준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매년 도심·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등 100곳 이상을 선정해 5년간 총 500곳에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10개소를 선정한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도심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와 일선 구청들은 총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2면에 계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5·18 특별법’ 내주 당론 발의

헬기 기총소사·전투기 출격 대기 등 조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은 이미 국민의당에서 두 달 전에 발의한 특별법 내용과 대동소이한데다 5·18 기념재단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항의성 공문을 보낸 뒤에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면피용 ‘뒷북 발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투기 출격 대기, 발포명령 하달 문서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론으로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5·18 기념재단은 지난 5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공문을 보내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두 달 전에 발의됐는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오는 8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항의성 공문을 보낸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모든 의혹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는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면피용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기 보다는 국민의당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면서 정기국회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협치’의 지렛대를 삼아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46일 대장정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6면〉

‘FUTURES’(미래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래된 미래’, ‘미래를 디자인하자’, ‘미래를 창업하자’, ‘아시아 더 퓨쳐’ 등 4개의 본전시와 특별전(3개), 디자인 비즈니스, 국제학술행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34개국 850여 작가와 기업 등이 출품한 1300점의 작품이 관람객을 만난다.

이날 오후 7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홍보대사를 맡은 영화배우 안성기,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시민 등 1000명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중국 CCTV 등 국내외 취재진이 참여한 가운데 프레스 오픈 행사가 열렸다. 전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 하모니 500개의 등’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프레스 오픈에 참석한 취재진들이 ‘아시아 더 퓨쳐’전에 전시된 ‘아시아 하모니 500개의 등’을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립니다

제2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 공모

중국 용정 윤동주 시비

광주일보사·‘시산맥’ 공동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는 암울한 일제 식민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입니다. ‘서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제정한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올해 생가와 모교가 있는 중국 용정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등 시인의 나라사랑과 시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며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공모합니다.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문학상에 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 **대상** : 등단 15년 이상으로 윤동주 문학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는 시인
- **선정대상** : 2016년 계간 겨울호(월간 9월호)~2017년 가을호(월간 8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 **상금** : 1000만원(11월 시상 및 수상작품집 발간)
- **심사일정** : 9월에 심의위원이 추천한 시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중 본심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

- **공모분야** : 시(한글) ■ **대상** :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 거주하는 시인
- **응모 작품 수** : 5편 이상 10편 이내
- **마감** : 2017년 9월 30일 ■ **상금** : 300만원
- **응모 요령** : 원고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약력, 전화번호 기재)
- **보낼 곳** : poemmtss@hanmail.net(문의 062-220-0624, 02-764-8722)

光州日報社

5·18 헬기 조종사도 조사한다 ▶6면
공공기관 합동채용 일정 ▶10면
신팔도유람-산청약초축제 ▶18면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40kg, 자동7단), 복합연비: 9.1km/ℓ(도심연비:8.3km/ℓ,고속도로연비: 10.4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192g/km · GLC 22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58kg, 자동9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심연비:11.6km/ℓ,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GLC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11.4km/ℓ,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51g/km ·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9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도심연비:7.5km/ℓ,고속도로연비: 9.0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17g/km · GLE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2,28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1km/ℓ(도심연비:10.4km/ℓ,고속도로연비: 12.2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GLE 350d 4MATIC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350kg, 자동9단), 복합연비: 9.7km/ℓ(도심연비:9.0km/ℓ,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200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520kg, 자동9단), 복합연비: 5.8km/ℓ(도심연비:5.2km/ℓ,고속도로연비: 6.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06g/km · GLE 350d 4MATIC Coupé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405kg, 자동9단), 복합연비: 10.1km/ℓ(도심연비:9.2km/ℓ,고속도로연비: 11.3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93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Coupé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465kg, 자동9단), 복합연비: 6.2km/ℓ(도심연비:5.4km/ℓ,고속도로연비: 7.5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89g/km · G 350d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7.7km/ℓ(도심연비:7.2km/ℓ,고속도로연비: 8.3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59g/km · Mercedes-AMG G 63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5.2km/ℓ(도심연비:4.8km/ℓ,고속도로연비: 5.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4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